



열사 100일, 한발 더 같이 나감시다

눈물의 꽃길 100리, 양재동으로

한광호 열사의 서울시청 분향소가 양재동으로 왔다. 3일간 쏟아지는 비를 뚫고 100리를 걸어서 양재동에 도착했다. 빗물에 온몸은 흠뻑 젖었고, 통통 불은 발은 물집까지 잡혔다. 그렇게 늦은 밤까지 싸워서 간신히 분향소를 차렸다. 그러나 경찰은 그마저도 다음날 아침 바로 침탈했다. 양재동 앞은 아직도 열사의 분향소 마저 거부하고 있다. 법이나 윤리 같은 건 따질 수도 없는 곳이었다.

열사 죽음 후 끊임없이 싸운 100일

24일은 열사가 돌아가신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그동안 안 해본 투쟁이 없다. 영동공장, 서울시청,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 분향소를 차리기 위해 쓰레기봉투 속에서 잠을 청해야 했고, 용역깡패의 폭력도 견뎌야 했다. 분향소를 지키기 위해 한달 넘게 노숙투쟁을 하고 있다.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행동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집회, 면담투쟁도 수없이 진행했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파업투쟁을 마다하지 않았고, 전체 조합원들의 상경투쟁과 노숙투쟁도 계속 하고 있다. 열사 범시민 대책위 등 사회적 연대도 모아지고 있다. 정말 많은 목소리가 양재동에서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100일의 투쟁은 열사의 한을 풀기 위해 쉬지 않고 전진했다.

냉동고 속의 열사 따뜻한 곳으로

그러나 아직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고 있다. 현대차는 자신들은 관계없는 일이라며 발뺌하고, 유성기업은 유족에 대한 모욕과 거짓말까지 일삼고 있다.

아직도 한광호 열사는 차가운 냉동고에서 100일을 보내고 있다. 이제 열사를 따뜻한 곳으로 보내 드려야한다. 24일 양재동 앞에서 열사 투쟁 100일 문화제를 통해 다시 힘을 모으려고 한다. 100일 동안 치열하게 걸어온 투쟁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진짜 열사를 고이 보내드리기 위한 결정적인 한방을 준비할 것이다. 더는 열사를 냉동고에 둘 수 없다.

계열사 조직해서 유성기업 바꾼다!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충북 음성의 Y&T 파워텍 앞은 금속노조 가입을 홍보하는 목소리로 가득찬다. 코스파음성지회, 이래오토모티브진천지회, 현대오토넷사내 하청지회 동지들이 매주 목요일 이른 아침부터 빠짐없이 참석해 Y&T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Y&T 파워텍은 유성기업 계열사로 노조파괴 행동대장이었던 유현석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장이다.

노조파괴 공작이 한창일 때, 유현석 Y&T 대표이사는 직접 용역깡패들을 진두지휘했다. 이런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회사가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우할지 안봐도 뻔하다. Y&T는 영업이익률이 10%에 달할만큼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다.

Y&T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은 당사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유성기업 계열사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될 것이다. 지부는 유성기업 계열사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 이번주 일정 *

■ 한광호열사 100일 문화제

일시 : 6/24(금) 19시 ~
장소 : 양재동 현대차 본사

■ 충북 차별철폐 대행진

일시 : 6/20(월) ~ 25(토)
장소 : 충북권 전역

* 6/23(목) 17:00 행진 참가
(청주 공단오거리~성안길)